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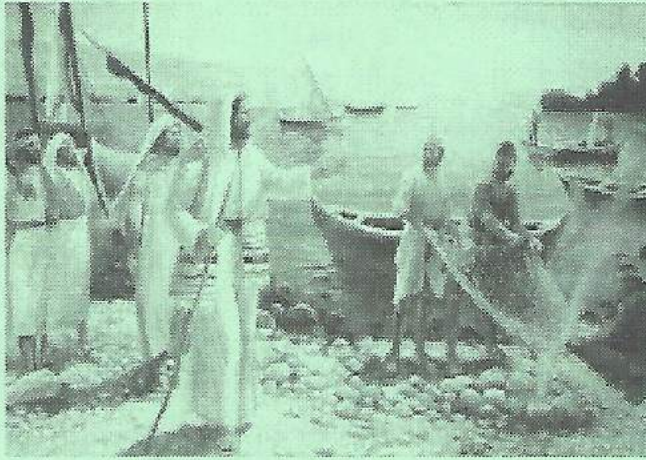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5주일

제36권 11호(다해) 2016년 2월7일

[묵상]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는 주님의 낚시꾼이다.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져야 한다.

영동한 곳에, 우리 욕심에, 미움에, 오해에, 시기, 질투에 빠져

영동한 곳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히겠는가?

주님께서 던지라는 곳에,

사랑이 머무르고, 이웃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화해하고,

친교 하는 곳에 던져야 한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자 독특한 부르심을 받고 있으며,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역사에 있어서 유독 그만이 할 수 있고,

그만이 이루어야 하는 고유한 소명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민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민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토요 저녁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Robert Polk,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기형 프란치스카, 김인영 베드로, 김준경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용관 요셉, 주시메온, 지용애, 김기준 안젤라, 이사범 로베르토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현시영 요셉, 이종수 마틴, 이용식 베드로 (생) 정동호 하상 바오로, 이용운, 박정미 클라라, 황윤제 베드로 가정, 최양숙 안젤라, 박기원 리디아, 김복순 벨라멧타, 스티븐 오, 엄유진 토마스 아퀴나스, 조옥종 요한 사제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6,1-2 3.3-8

화답송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기록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15,1-11<또는 15,3-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음 루카 (Luke)5,1-11

영성제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그분은 묵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3. 신자들의 생활

3-1. 신앙생활

이 종교 문화 전통에서 논하는 천당이나 지옥, 무소유나 해탈, 무위(無爲)나 해원(解冤) 등의 개념은 초기 교회의 신자들이 자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에 배경적 사상으로 작용하였다. 물론 그들은 전통적 종교와 자신의 신앙을 뚜렷이 구별했지만, 그들의 신앙 안에는 '해원'을 비롯한 전통 사상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앙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초기 교회의 신도들은 조정의 탄압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해 갔고 신심 생활을 계속해 갔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실천과 신심 생활의 바탕이 되어 준 것은 교회 서적이었다. 조선 교회는 창설 직후부터 일반 민중을 위하여 한글로 교리서를 번역하였다. 교리서 번역에 가장 앞장 선 인물은 최창현(崔昌顯)이었다. 원래 중인 출신인 그는 일반 신자들을 위하여 한문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시 신자들에게 널리 읽힌 책으로는 「성경직해광익(聖經直解廣益)」을 들 수 있다. 일요일과 주요 축일 때에 읽는 성서가 이 책에 간주려져 있었고, 여기에 부분으로 발췌되어 수록된 성경은 4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당시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한글로 번역된 복음서를 읽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교회에서는 「성교일과(聖敎日課)」,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敎功課)」를 비롯한 여러 기도서가 번역되어 신자들에게 읽히고 있었다. 기도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일과 가운데 하나였으며 영적 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배웠으며, 교회 창설 초기부터 삼종경과 묵주의 기도도 바쳤다. 그들은 천주심계를 기도처럼 외우며 날마다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 생활은 성사의 은총을 받기 어려웠고 성직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던 당시 사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속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14	181	208
봉헌	265	255	255
성체	308	308	303
과전	480	230	230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루카5, 10)"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묻고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그런 시간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평생을 주님 위해 견졌다고 땅에 엎드린 새 부제와 새 사제들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은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설 명절이고, 수요일은 주님의 수난과 부활 준비를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명절 때문에, 전례 때문에 서로 한자리에 모여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이사야, 바오로, 베드로의 삶에서 더욱 깊이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 이사야, 교회를 박해한 바오로, 죄 많은 베드로의 삶의 모습은 우리네 삶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쳇바퀴 속에서 살다 보니 하느님을 잊고, 이웃을 잊고, 가족을 잊고, 자신마저 잊고 사는 부족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화의 손길, 주님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이사야, 바오로,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이사야는 열정에 넘쳐 나섭니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삶의 기준이,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 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섰던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누가 선뜻 주님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한없는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며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사랑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을 낚으라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때의 그 마음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전해 받았고, 그 신앙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나의 삶에 있어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을 충실히 걸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복음 선포자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물을 던져야겠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이사 6,3)는 노래가 천상만이 아니라 이 땅의 곳곳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남성철 베네딕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금자 테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 후원을 위한 **2차 현금**
북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KAPA)와 해외파견 한인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 현금이 2월 첫째 주일(토요일 저녁 미사포함)에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미사**
 - 오전8:30, 오후 7:30,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금육과 단식)
-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2/12/16 (금)- 청년부
2/19/16 (금)- 대교회
2/26/16 (금)- 양업회
3/ 4/16 (금)- 요셉회
3/11/16 (금)- 소공동체
3/18/16 (금)- 본당 꾸리아
3/25/16(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 ◆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3월 18일(금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희생 애금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금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3월24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사순기간동안 매주 낮미사 중(11시)에 사순 특강이 있습니다.**

◆ '설날' 합동 위령미사

-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설날 합동 연 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8일(월) 오전 8시30분, 저녁 7시30분 :연도와 분향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절

- 일시: 3월 4일 (금) ~ 3월 6일 (일)
- 장소: St Anne Retreat Center
30480 Fredalba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참가비: \$60 (1/24~2/21 등록시), 이후 \$85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8학년 - 12학년
- 일시: 7월 29일 (금) - 7월 31일 (일)
- 장소: University of San Diego
- 참가비: \$200 (환불 불가능)
- 신청기간: 1월 24일 - 2월 28일 (주일학교 주최 행사 아니므로 마감일 이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선착순 30명
- 문의: 김낙기 주일학교 교장 310)709-3343

◆ 백삼위 서예반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2시~4시, 2층 유아실
- 문의: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 사회복지 무료상담소... 2월 상담

- 상담내용: 정부혜택 및 정보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들
- 상담시간: 매월 첫째주 & 셋째주 미사후 친교장
매월 둘째주 & 넷째주 전화예약자
- 문의: 이정훈 안젤모 ☎(310)908-8823

◆2월 14일(주일)은 프레지던츠 데이연후로

-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사무실은 대체휴일로 화요일에 휴무입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2월 7일 * 소공동체 : 김 밥 (\$4), 컵라면 (\$2)
* 주일학교 : 짜장밥 (4,7 학년)
- 2월 14일 * 토복1,2반 : 홍합미역 국(\$3)
* 주일학교 : 수업 없음

지나간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 명 김성현 김순옥 김영덕 김재영 김 준 김충섭 남인구 민순섬 박미경 박완철 박종열 박진수 박혜정 서영자 서영주 신용섭 오세원 오일순 유민상 윤석구 윤선희 윤화경 이경태 이재철 이현주 이형삼 정혜영 조준제 주대종 최상만 최열자 최지영 최태훈 한혁수 합계:\$2,945	성전헌금	구자운 김영덕 김 준 김충섭 남인구 박완철 박진수 서영주 오세원 윤선희 윤화경 이현주 이형삼 정혜영 조준제 주대종 최상만 최열자 최지영 최태훈 한혁수 합계 : \$1,220
주일미사 현금 :\$2,655	광고 협찬 : \$424	감사헌금\$2,100(윤석구, 익명)	

◆ 위안부문제 서명운동-2월 14일까지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2월 7일부터)
대상 : 8 학년 이상 (수강료 \$ 200.)
- 백삼위 한국 학교 성인 반 모집
*과정 : 한글 기초, 읽기 쓰기반
*매주 금요일 (7:00~8:30pm)
- 한국 학교 설날 행사
일시 : 오늘주일 (7일) 오후 12시 ~ 3시
내용 : 신부님께 세배하기, 전통놀이 하기, 음식 나누기
-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I, II)
시험 일 : 4월 16일 토요일
시험시간 : TOPIK I - 오전 9시~오전 11시 10분
TOPIK II - 오후 12시부터~오후 4시
접수기한 : 2월 14일 오후 3시까지 한국학교에 접수
* 단체 접수하드로 기한 엄수.
시험장소 : 시험장소 지원 신청
제 1 시험장 - LA교육원 (CA 90005)
제 2 시험장 - 동부한국학교 (CA 91748)
제 3 시험장 - 감사한국학교 (CA 90620)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새 신자 환영합니다.”

반기주 소식

◆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강좌안내

● 면형강학회: (교회사와 순교자 영성을 중심으로)

세계 천주교회사 안에서 조선 후기시대를 조망하면서 한국 천주교회사를 중심으로 민족의 구원사, 영성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지 순례를 통하여 신앙을 쇄신하고 영성을 심화합니다.

- 일 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첫 강학일 : 2016년 4월 4일

● “영혼의 빛” 모임 (한국교회가 낳은 영성의 큰 스승
방유통 신부님의 영성 공부)

핵심영성: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설립자이신 방유통 신부님의 영성은 늘 깨어 있어, 일상의 모든 순간을 완전케 하는 점성(dot)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비우고 정화하여 하느님 안에 사랑으로 몰입되는 침묵(silence)과 대월의 삶(face to face with God)을 통해 하느님과 합일하는 면형무아(Eucharistic Kenosis)의 영성입니다.

- 일 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개 강 : 2016년 3월 1일

- 장 소 :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 내 순교자 영성센터
- 기타 문의 : (562) 461-8100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2/3(수) 오후 4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김찬구 요한 2/13(토) 오후 6시,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강혜원 아네스 2/20(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윤화경 바오로 2/13(토) 오후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정광미 프란치스카 2/12(금) 오전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대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집자가의길’로 대체 2/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2/9(화) 오전 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2/13(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명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조화숙 안젤라 2/15(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주대종 다니엘 749-3151 2/13(토) 오후 7시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집자가의 길 2/12(금) 오후 7시30분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2/13(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김명록 요셉 2/5(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운모 아가다, 성당 2/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제 단체 모임	1시
---------	----

2016년 사순 시기 교황 담화

1. 복음화 되어 복음화 하는 교회의 모습이신 마리아

자비의 특별 회년 선포 칙서에서 저는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이 회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 자비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로 우리는 이 시기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칙서 「자비의 얼굴」, 17항). 하느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호소와 함께 ‘주님을 위한 24시간’ 행사를 권유하면서, 저는 하느님 말씀의 경청, 특히 기도하며 하느님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으로,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선포를 직접 체험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사순 시기에 자비의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그들이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가까이 계심과 용서의 구체적 표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들으신 마리아께서는 마리아의 노래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자비를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요셉과 약혼하신 나자렛의 처녀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십니다. 처녀이신 마리아께서 잉태하도록 하신 성령의 힘으로 교회는 복음화 되었고 지금도 복음화 되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전통에서 자비는 이미 어원적 차원에서 [히브리어] 라하미(rahmim)와 헤세드(hesed)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라하미는 모태를 뜻하고 헤세드는 혼인 관계와 친척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관대와 충실과 연민이 넘치는 선함을 뜻합니다.

2. 하느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인 자비의 역사

하느님 자비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자비로 충만하시고, 깊은 은유와 연민으로 당신 백성을 대하실 준비가 늘 되어 계십니다. 특히 백성의 불충으로 계약 관계가 깨어져 정의와 진리로 더욱 견고한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때에 그러하십니다.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 배신당한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불충한 자녀와 아내의 역할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볼 수 있는 것처럼(호세1-2 참조), 이러한 가정의 비유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당신 백성과 유대를 맺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 이야기는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께 당신의 한없는 자비를 쏟아 부어 주시어 그 아드님께서 강생하신 자비가 되시게 하셨습니다(「자비의 얼굴」, 8항 참조). 나자렛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아드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마(Shema)로 모든 유대인에게 요청되는 하느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을 체현하십니다. 이 서마는 오늘날에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신부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신랑이시며 영원한 혼인으로 가시화되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당신 신부와 결합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케리그마(kerygma)의 살아있는 핵심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 자비는 중심적인 근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구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36항)이며, 첫 선포인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언제나 우리가 거듭 들어야 하는 것이고, 교리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모든 단계와 시기에 언제나 우리가 거듭 선포하여야 하는 것”(「복음의 기쁨」, 164항)입니다. 자비는 “죄인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에게 참회하고 회개하여 믿도록 하는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자비의 얼굴」, 21항).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당신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잘못을 저질러 당신을 등지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에게조차도 다가가시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마침내 당신 신부의 완고한 마음을 달래고자 하십니다.

3. 자비의 활동

하느님 자비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느님 자비는 인간이 충실한 사랑의 경험을 통하여 자비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하느님 자비가 우리 저마다의 삶을 비추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전통에서 자비의 영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이웃을 육체적 영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일상의 구체적

활동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고, 찾아가 주며, 위로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가난이라는 비참함에 무뎠진 우리의 양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또한 복음의 핵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자비의 얼굴」, 15항). 그리스도의 몸이 가난한 이들 안에 있기에, “고문당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찢어진 당한 이들, 굶주리는 이들과 난민들의 몸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알아보고 만지며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자비의 얼굴」, 15항). 흠 없는 어린양의 수난이 역사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기막힌 신비입니다. 이는 거저 주시는 사랑의 불타는 떨기로 우리는 그 앞에서 모세와 같이 신을 뵈을 수밖에 없습니다(탈출 3,5 참조). 가난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고통을 받는 우리의 형제자매일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죽음만큼 강한 이러한 사랑 앞에서는(아가 8,6 참조),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가 가장 가난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자라고 여기지만 사실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입니다. 이는 그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죄로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또한 불쌍한 거지일 뿐이라는 깊은 의식을 억누르는 데에 이용합니다. 그의 권력과 부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무분별한 기만도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라자로를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루카 16,20-21 참조). 그런데 가난한 라자로가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라자로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어쩌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함에는 종종 우리가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오만한 망상이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악마적인 “너희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창세 3,5 참조)라는 생각이 사악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망상은 20세기의 전체주의 체제들과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사고와 과학기술의 이념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격하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망상은 또한 배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릇된 발전 모델에 관련되는 죄의 구조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부유한 개인과 사회가 가난한 이들의 미래에 무관심해지도록 하여 그들이 문을 닫아걸고 가난한 이들을 보는 것조차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회년의 사순 시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비의 활동을 실천하여 우리의 실존적 소의를 극복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며,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찾아가 주어야 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집니다. 또한 우리는 조연, 교육, 용서, 권고, 기도와 같은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자비의 이러한 육체적 활동과 영적 활동은 결코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가난을 통하여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며 자신도 불쌍한 거지임을 자각하는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온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자들”도 이 길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권력과 부라는 우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무한한 행복과 사랑에 대한 갈망은 오직 이러한 사랑으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않으면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고독의 심연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다음과 같은 간절한 말은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루카 16,29). 그러한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신랑의,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기념할 준비를 매우 잘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께서는 당신이 오시기를 바라는 당신의 신부를 깨끗하게 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회개하기에 매우 좋은 이 사순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거저 주어진 하느님 자비의 위대함을 접하시고는 당신의 비천함을 가장 먼저 깨달으시고(루카 1,48 참조) 당신을 주님의 겸손한 종이라고 하신(루카 1,38 참조) 동정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전구를 통하여 이를 간청합니다.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55-388-414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모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서민*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레이크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S9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